

월간 내일

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

2023
VOL.574

03

오피니언

성장하는 팀을 만드는
열쇠

고용 아카이브

고용노동부도
국민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멘토크

노래를 통해 성장하는
가수 박창근

이달의 키워드

성장



가수 박창근



삶은 **변화**이고
변화는 **성장**이다

사람이 위대한 것은 목표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목표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는 변화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장에 한계를 두지 마세요.
당신의 변화는 끝이 없을 테니까요.

CONTENTS

2023 March VOL. 574



04 오피니언

06 고용 아카이브

12 멘토크

- 노래를 통해 성장하는 가수 박창근

16 레벨업 스토리

-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임재승 씨

20 슬기로운 회사

- “은퇴선수들의 저력을 보여주고 싶어요”
(주)디에스그룹

24 브라보 라이프

- 뒤늦게 천직을 발견하다, 디자이너 김재은

28 MOEL News

34 잡 큐레이션

- 낭만과 감동에 존재하는 땀과 노력
테마파크 퍼레이드 기획자

36 워커복

- 마케터의 힘을 키우는 길

38 주말에 뭐 할래?

40 낼툰

42 #일스타그램

43 MOEL letter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74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한국애드



성장하는 팀을 만드는 열쇠

(사)한국코칭연구원 **류호택** 원장

급여를 많이 받아도 회사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성장 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 회사의 규모가 아무리 크고 연봉과 복지가 훌륭해도, 구성원으로서 앞으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주저 없이 이직과 퇴사를 결심하게 된다.

직장 내에서 팀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팀원의 팔로워십과 상사의 리더십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팀장과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리더십의 권위자 '존 맥스웰'은 리더십을 5단계로 나누고 인재 육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가 말한 단계별 리더십은 ①지위의 리더십, ②관계의 리더십, ③성과 달성 리더십, ④인재 개발 리더십, ⑤구루 리더십'이다. 이 중에서 사람을 육성하여 성과를 달성하는 리더십은 높은 단계에 두었다. 팀장의 리더십과 팀원의 팔로워십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첫째, 팀장이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음'이란 어제의 해결 방법으로 오늘의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슈는 어제가 아닌 오늘의 지혜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야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성장의 기쁨도 함께 누린다. 둘째, 팀장은 자기의 방법이 항상 최상이 아니란 점을 인정하면서 팀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꼰대'소리를 듣지 않음은 물론 팀원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한다.

셋째, 소통을 통한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팀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게 되면, 이를 통해 팀장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활발한 소통은 창의력과도 연결된다. 미국 산타페이 복잡계 연구소 고프리 웨스트 박사와 하버드대학교 에드워드 글래드 교수는 활발한 소통이 창의력과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가 말해주듯이 활발한 소통은 팀장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넷째,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팀장은 팀원들과 서로의 일하는 방식, 직업가치, 성격, 바라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을 공유하면 좋다. 이 때 팀장은 구성원의 다름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은 여러 사람을 상대해야 함을 인지시키면서 되도록 팀장의 방식을 따를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런 요청을 거절할 팀원은 거의 없다.

다섯째, 구성원들의 팔로워십도 필요하다. 팀장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의 리더십 역량 부족을 고민하기도 한다. 이런 팀장의 고충을 구성원들도 이해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좋다. 그렇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 검토해야 할 점도 같이 제시하면 그것은 멋진 제안이 된다.

여섯째, 함께 성장하면서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이런 마인드는 팀장은 물론 팀원에게도 필요하다. 팀장은 어떻게 하면 팀원들이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장의 기쁨도 느낄 수 있을지 연구한 후 자기 생각을 구성원들에게도 말해야 한다. 직장에서 '이심전심'은 없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해야 한다.

앞선 내용을 명심하고 구성원과 팀장이 함께 노력한다면 팀을 넘어 개인의 성장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성과 달성의 기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만 느낄 수 있지만, 성장의 기쁨은 매일 느낄 수 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졌다면 그것은 성장했다는 의미다. 팀장이라면 이런 성장의 기쁨을 구성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매일 아침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다. 구성원도 자신이 오늘 어떤 일을 하면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다. 구성원의 성장이 결국 팀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도 국민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꿈을 향해 달리는 청년들의 슬기로운

취준생활을 응원하고,

일과 가정 모두 놓칠 수 없는

엄마, 아빠의 부지런함을 응원하고,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

근로자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꺼이지 않는 마음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도전하세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시 구직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만 18~34세)과 같은 구직단념 청년뿐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 선발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1~2개월의 단기 프로그램(이수시 50만원 지원)과 5개월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최대 300만원 지원)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정책연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① 사례로 만나봐요

“무기력증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면접 공포증이 있는 청년 A(31세·남) 씨는 매번 최종 시험에 떨어지며 좌절감에 빠졌고, 세상과의 연을 끊으며 무기력한 삶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알게 되어 적극적으로 1:1 밀착상담, MBTI 분석 및 애니어그램 성격 검사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게 됐으며, 특히 면접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면접 공포증을 이겨내게 되었다. A 씨는 “면접 합격이라는 성공 경험을 계기로 앞으로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라고 밝히며 새로운 성장의 각오를 다짐한다.

② 지원규모 및 내용



도전 프로그램(1~2개월)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지급



도전+ 프로그램(5개월 이상)

참여수당 **250만원**(월 50만원×5개월) 지급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③ 신청자격

미취업 청년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34세 등)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대학졸업 유예생, 장기 휴학생 등으로 진학이나 취업 의욕이 낮은 자

자립준비청년

최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 쉼터 등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지역특화

사업참여 자치단체에서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필요성 인정되어 참여를 승인한 청년
*지자체별 운영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



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괜찮아요

출산·육아지원제도로 일하는 엄마와 아빠의 부담을 덜어드려요

출산·육아를 하더라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엄마 아빠를 위한 다양한 출산·육아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

사업명	내용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상한액 월 210만원)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이후에도 잔여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원(상한액 월 210만원)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출산(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수 없는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상한액 월 210만원)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휴직급여를 지원(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을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단축한 시간에 따른 급여를 일정비율로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10일)를 부여받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함)에게 최초 5일분에 대한 급여를 지원(상한액 401,910원)

※ 지원요건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



◎ 사례로 만나봐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5살 아들을 두고 있는 B(36세·여) 씨는 유능한 워킹맘이다. 일을 따르자니 아이가 울고, 아이를 따르자니 경력을 중단해야 했다. 일과 아이 모두를 포기할 수 없던 B 씨는 얼마 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육아휴직을 따로 쓰지 않았던 B 씨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계약직 근로자도 출산휴가 사용할 수 있어요.”



C(31세·여) 씨는 2023년 01월 20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였다. C 씨는 2023년 01월 0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재직 중에는 출산휴가 90일분 중 총 20일밖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 걱정이 없었다. 2023년 01월 01일~2023년 01월 20일(20일치)에 해당하는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2023년 01월 21일~2023년 03월 31일(70일치)에 해당하는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각각 신청해 90일에 대한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지원절차





중장년은 일하기 참 좋은 나이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을 이용해 보세요

빨라지는 퇴직 시기에 제2의 인생설계를 대비해야 하는 중장년들이 많아졌습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미래 준비를 위한 심층 경력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만 45세 이상의 1,000인 미만 기업 재직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단, 이 서비스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300~500만 원에 달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외 민간 컨설팅 기관의 상담과정에 참여 가능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추가 지급된 크레딧은 지급 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민간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1:1 심층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공고·심사를 통해 운영기관·과정 심사,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체계를 준용해 상담 과정 진행



◎ 사례로 만나봐요

“60대는 아직 할 일이 많은 나이.”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D(59세·남) 씨는 ‘대장암 3기’라는 소식을 전달받았다. 다행히도 2년여의 치료 끝에 다시 출근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되찾았지만, ‘나이’라는 장벽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다. D 씨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경력설계 상담을 받았다. 30년 넘게 식품업계에서만 일해온 D 씨는 생각지도 못하게 ‘강사’라는 진로 적성 결과가 나왔다. 그는 늙은 나이에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내심 의문스럽기도 했지만 상담을 담당한 컨설턴트는 ‘60대는 아직 할 일이 무척 많은 나이’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용기를 얻은 D 씨는 강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여 블라인드 채용 전문 기업에서 교육 강사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52세, 새로운
적성을 찾다.”



중소기업 재직자인 표(52세·남) 씨는 재취업에 대한 고민이 한창이다. 그때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무료로 경력설계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제도를 알게 되었다. 사업에 지원한 표 씨는 맞춤형 경력설계 상담을 통해 ‘경영 및 인사 관리’라는 진로 적성 결과를 받았다. 원래는 IT 개발 분야로 약 20년 이상 근무를 했던 표 씨는 새로운 도전이 진짜 가능한 일일까?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솔직한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상담을 받고 본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하나씩 찾다 보니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직무에 흥미가 생겨 국민내일배움카드 내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노래를 통해 성장하는 가수 박창근이 답하다

우리 모두의 매일은
성장하는 과정이니까요

'제1대 국민가수'라는 타이틀은 박창근에게 그리 중요치 않다. 그저 언제까지고 기타 치며 노래하는 음악인일 수만 있다면.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 담긴 박창근의 노랫말은 위로가 되어 우리에게 닿는다. 그렇게 진심을 노래하는 박창근이 멘토로서 여러분의 물음에 답한다.



박창근 멘토와의
더욱 자세하고 생생한 인터뷰는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Q. 노래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학창 시절 간간이 수업 시간이나 소풍 때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긴 했지만 직업으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대학에 가서는 여러 동아리 활동 중에 특히 노래패 활동이 가장 즐거웠어요. 다양한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볼 수 있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연 활동도 시작되었어요. 이후 더욱 많은 노래를 접하면서, 음악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 알려지는 예술인을 유명, 무명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제 생각과는 조금 달랐어요. 무명,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을 순 없다고 생각해요. 알려지는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할 뿐이었습니다.

‘생존’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이 일로 생존할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의문이 오랫동안 반복됐죠. 이 기간을 무사히 지날 수 있었던 건, 저의 팬이자 지인인 사람들의 정서적인 지원 덕분이에요.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들 때마다 나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주변 사람들이 아주 큰 힘이 되었어요.



Q. ‘내일은 국민가수’
프로그램 우승으로 이름을
알리기까지 어떻게 오랜
기간 음악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나요?



Q. '내일은 국민가수'에 참가하며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다른 참가자들을 대할 때 스스로 많이 조심했어요. 연장자로서의 말과 행동 표현이 세대가 다른 이들에게 자칫 오해를 부를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반대로 어린 참가자들도 저를 많이 존중해줬어요.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참가자들과 아무런 어려움 없이 경연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경쟁'이라는 경연 프로그램의 목적에 곤란함을 느낀 적이 있어요. 시청자들에게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그저 내 음악을 들려주자는 마음만으로 방송을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까지의 활동과 비슷할 것 같아요. 간간이 방송 및 라디오에 모습을 비출 테고, 콘서트를 통해 팬분들을 더욱 가깝게 찾아뵐 듯합니다.



Q. 박창근 멘토님께는
또 어떤 성장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장'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토록 고민하다 출연한 '내일은 국민가수'가 성장의 기회가 된 것처럼요. 꼭 경연에서 우승하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성장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경연을 치르며 부딪히고 깨지는 그 과정들이 저에겐 성장의 일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눈앞에 놓이더라도 담담히 헤쳐 나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곧 성장이니까요. 씻고, 먹고, 자고,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한 오늘이라도 분명 그 속에서 조금은 성장했을 거예요. 이렇듯 우리 모두의 매일은 성장하는 과정이지 않을까요?



Q. 박창근 멘토님의 내년까지의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요?



Q. 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저는 경연에서 우승하지 않았어도 계속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도 돈과 지위가 아니라 오롯이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깨닫고 나면 용기가 생기거든요. 오히려 더 겸손해지기도 하고, 타인의 가치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특히 저와 같은 세대라면 '더 이상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더욱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단에 소속되고자 또는 도태되지 않고자 매일 압박과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나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남들도 나를 인정해주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힘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이 잡는 것이고 나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손해평가사 임재승

임재승 씨는 은퇴 이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총 5개의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인생 2막에 필요한 기술과 직업을 그 5개의 국가자격증을 통해 얻었다고 말합니다.

수없이 펼쳐봐 너절해진 문제집을 뒤로하며, ‘새로운 직업을 갖는 데 나이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임재승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다

“노년층은 늘어나지만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기에, 앞으로는 일이 넘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공부한다.”라는 날카로운 말로 인터뷰를 시작한 임재승 씨는 60대의 나이에도 도서관에 앉아 내리 10시간 책을 보는 ‘노력파’입니다. 그는 A항공 창립 멤버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지점장으로 발령받았을 때에도 독학으로 일본어를 익혀 영업, 운송, 인사를 총괄하는 등 늘 스스로의 노력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는 사람이었죠.

A항공에서 15여 년을 근무한 뒤 E항공에서 7년을 근무했고, 그 뒤에도 여행사 임원으로 부임하여 6년간 회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순탄하던 커리어는 2019년 찾아온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습니다. 하늘길이 막혀 관광산업이 우후죽순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대량실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임직원들을 정리하고 하던 임재승 씨 역시 2020년 4월 퇴사를 결정하며 30년 직장생활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했던 팬데믹과 빨라진 은퇴. 혼란스러울 수 있었던 이 상황을 임재승 씨는 금세 좋게 생각하기로 합니다. 인생 2막을 지금까지 전혀 해보지 않은 생활로 채운다면 ‘새로운 즐거움을 가득 얻을 수 있겠다’ 자신했기 때문이죠. 그가 은퇴 이후 첫 번째로 내린 결정은 “이제 남은 인생은 평온한 마음으로 공기 좋은 곳에서 전원생활을 해보자!”이고, 두 번째로 내린 결정은 “현장에서 혼자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다시 익혀보자!”였습니다.

“

은퇴 이후가 불안하지 않으려면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인내를 바탕으로 도전하면 됩니다.
도전에 나이는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



예순이 넘어도 멈추지 않는 자기개발

임재승 씨는 퇴직 전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를 발행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자기개발 부 지원'을 검색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제도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놨던 덕분이었죠. 이전부터 은퇴 이후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확실했기에, 그의 몸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습관이 배어있었습니다.

2020년 퇴직 이후 임재승 씨는 아내 그리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한 반려견과 함께 물 좋고 공기 좋은 경남 산청군 시천면의 지리산 밑 자락으로 터전을 옮깁니다. 이후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찾았습니다. 그 중 귀촌 생활에서 필요할 것 같은 중장비기능사(굴삭기, 지게차)와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자체에서 공모하는 농촌의 소일거리에라도 응모하려면 국가 자격증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임재승 씨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자격증이 그 답이었죠."라며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랜만의 시험에 긴장은 되었지만, 보란 듯 필기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실기 역시 부산에 있는 전문학원 수업을 빠짐없이 수강한 끝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
손해평가사 자격 취득이 합격률이 낮은 난이도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이야말로 내가 도전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직업일수록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

절체절명의 손해평가사 도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기회를 잡기 위해 1년 만에 종장비기능사(굴삭기, 지게차), 조경기능사 그리고 원예기능사까지 4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임재승 씨는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었으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노후에 안정된 수입을 확보하면서 당당하고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뭘까?” 고민하던 중 손해평가사라는 자격증을 발견합니다. 손해평가사 자격증은 합격률이 낮은 난이도 높은 시험이라는 주변의 말은 그에게 더욱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어렵게 성취한 일을 할 때의 자긍심을 먼저 생각했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여유로운 시골 생활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후 임재승 씨는 10개월간 집과 도서관을 다니며 두꺼운 문제집을 풀며 하루 14시간 이상 공부에 몰두합니다. 외울 것이 많은데 나이가 들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기억력의 한계는, 반복의 반복으로 극복했습니다. 결국 인내가 답이었던 것이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 10개월간 공부 끝에 2021년 11월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열정

임재승 씨는 앞서 취득한 ‘원예기능사’와 ‘조경 기능사’ 지식을 살려 ‘농작물 손해평가사’로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농작물 손해평가사는 농어촌 재해 시 농어민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과일, 논, 밭작물과 같은 작물에 대해 손해평가를 진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지난 한해 참 부지런히 논과 밭을 뛰어다녔다고 말하며, 새로운 삶과 직업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데 이게 웬일인가요. 오늘 임재승 씨를 만난 장소 역시 도서관. 이유를 물어보니 “농작물 손해평가사로서 전문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기사’와 ‘조경산업기사’ 시험을 준비 중”이란 대답을 들려줍니다. “아마 도전과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라는 말과 함께요 끊임없이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임재승 씨를 응원합니다.



“은퇴선수들의 저력을 보여주고 싶어요”

(주)디에스그룹

스포츠계를 떠나는 은퇴선수는 최근 5년간 4만 7,046명(대한체육회, '22. 10. 기준)에 이릅니다. 이들은 불안한 미래, 부상, 경쟁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은퇴를 결심한다고 합니다. (주)디에스그룹은 수년 전부터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구상하고 하나님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마침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됐습니다. 이곳에 모이는 체육인들은 다양한 진로 지원을 받으며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소외계층을 위한 요리 봉사와 자율방범순찰도 실천합니다.





운동선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대구 달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복싱체육관인 '달서복싱' 건물에 (주)디에스그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디에스그룹은 대구·경북권에서 유일한 스포츠 사회적기업으로, 은퇴 운동선수들이 전문성을 살려 인생 2막을 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퇴 운동선수의 평균 나이는 23.8세로 매우 빠른 편임에도 불구하고 진로·취업 준비가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디에스그룹 정희준 대표(37세)는 역시 20대 초반에 프로에서 물러난 은퇴선수였기에 누구보다 이들의 사정에 깊이 공감해왔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운동에 입문하는 선수들은 실업 팀이나 대학팀에 가면 100%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하지만 그걸 이루는 건 극소수고, 정작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죠. 복싱, 레슬링 등 촉망받던 선수 생활을 뒤로하고 은퇴한 주변의 선·후배들을 보면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하거나 무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한체육회가 국회에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은퇴 이후 스포츠 관련 업종에 취직한 경우는 29.8%에 불과하고, 무직이 무려 41.9%에 이르렀습니다. 취업을 했더라도 비정규직이 64.6%로 집계될 만큼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은퇴선수 진로지원

프로젝트

정대표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두려운 계획이 없이 고용 시장에 다시 나오는 것이 대다수의 문제임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체육을 전공한 은퇴선수를 (주)디에스그룹의 정직원으로 고용해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국가가 자격증을 취득해 체육관 창업이나 다른 단체의 지도자로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주)디에스그룹의 교육은 은퇴 후 진로 상담에서부터 자격증 취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 나아가 취·창업에 필요한 취업처 연계나 행정 절차 안내도 이루어지기에 1:1 컨설팅이라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스포츠 관련 업계가 폐업을 면치 못할 때, 정부의 피해 지원이나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다양함에도 정보의 부재로 신청조차 못하는 선·후배들을 보고 정대표는 직접 제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주)디에스그룹에서 다루는 복싱 분야 외에도 태권도, 합기도, 검도 등 스포츠 분야의 지원 정보를 모아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상생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현재 은퇴선수 지원이 이뤄지는 지역은 대한체육회 산하 진로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과 부산·경남 단 두 곳뿐입니다. 따라서 (주)디에스그룹은 개인기업이긴 하나 사회적기업으로서 은퇴선수 지원에 앞장서는 선두주자이자, 대구·경북권 은퇴선수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익창출 모색하며 나눔활동 지속

(주)디에스그룹은 이곳 달서구 이외에도 달성군, 수성구, 북구까지 지점을 확대하고 주짓수, 유도, 헬스장 등으로 종목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스포츠기기 및 스포츠용품 판매, 이벤트 대행 등 다각도의 수익창출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평범한 복싱체육관이 의미 있는 회사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건 일찍부터 정희준 대표가 뛰어 들었던 나눔활동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일찍 가

세가 기울어 힘겨운 청소년기를 보낸 정 대표는 성인이 되자마자 지인 5명과 '싱요사(싱글을 위한 요리사랑) 봉사단'을 만들어 요리봉사를 실천했고, 20대 후반에는 은퇴선수들과 함께 자율방범순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두 활동 모두 더 많은 체육인들과 함께 더 많은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이 많은 정 대표는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기울입니다.

“체육관을 운영하다 보니 가정형편이 어려워 일탈하는 청소년들도 자주 만납니다.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으니 체육관을 찾는 것이죠. 은퇴선수들이 그 아이들을 좋은 길로 이끌어준다면 사회적으로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은퇴선수들이 평생 근무할 수 있는 탄탄한 스포츠 기업으로 회사를 성장시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디에스그룹의 행보는 아직 진로를 찾지 못한 은퇴선수는 물론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현역 선수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상담으로 재취업의 윤곽을 그리다

디자이너 김재은

직업교육을 거쳐 조금 늦게 천직을 발견하게 된 김재은 씨는 기쁨도 잠시, 코로나19의 확산 앞에 경력 단절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 활동에 최선을 다했고, 단짝 같은 상담사를 만나 용기를 냈습니다. 현재 식음료 유통회사에서 에너지 넘치는 그림으로 제품에 생명력을 더하고 있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팬데믹 앞에 다시 무너진 꿈

30대 후반, 모두가 늦었다고 했지만 김재은 씨는 뒤늦게라도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꿈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취미로 그리던 그림이 직업으로 이어지기까지 끝없는 터널처럼 우울한 시기도 있었고, 망설임과 두려움으로 밤낮 잠 못 이루던 날들도 있었지만 취업의 기쁨이 금세 아픔을 씻어주었습니다.

“디자인 애이전시에서 브로슈어 같은 인쇄물도 디자인하고 신문도 만들면서 매일매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뼈를 깎는 듯한 노력을 거치고 들어간 직장이었기에 보람이 더 컸습니다. 직업전문학교에서 공부할 때 20대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 잠까지 아껴가며 그림을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고생을 보상받는 것 같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2월, 김재은 씨는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1년간의 짧은 회사 생활이었지만 급여나 복지 등을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적성에 잘 맞는 일이었기에 아쉬움이 무척 컸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취업 시장이 일어불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길어지는 경기침체 속에서 나이 많은 디자이너를 원하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이력서를 내도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현실의 벽이 야속하게 느껴졌지만 어느새 체념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우울감도 점차 심해졌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추진력을 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기간은 예상보다 더 길어져만 갔습니다. 김재은 씨는 주변 지인들의 작업을 도와주며 프리랜서 형태로 조금씩 수익을 얻기도 했지만 안정된 생활을 이어나가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그래도 김재은 씨는 취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게 되었고 외로운 싸움에서 벗어나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되었습니다.

“취업 정보를 검색하던 중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발견했죠. 매달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구직수당도 실용적이었지만, 특히 전문적인 상담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디자인 전공도 아니었고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니라 객관적인 조언이 필요한 때였는데 상담사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짚어주셨습니다.”



경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김재은 씨는 상담사와 여러 차례 심도 있는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형식적인 상담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논의가 이어졌고,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찾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SNS활용 마케팅 수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디자인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와중에 상담사님께서 마케팅 수업을 추천해주셔서 처음에는 의아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을 매출과 연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식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생소한 분야라 배우는 데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등 실무에 쓱쓱 적용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김재은 씨와 상담사의 호흡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재은 씨에게 잘 맞을 것 같은 구인 공고를 찾아주는 것은 물론 포트폴리오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까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재은 씨는 상담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개인 SNS 계정에 기록해 둔 야기자기한 일러스트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했고, 이전보다 훨씬 개성 있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쉬는 동안 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 틈틈이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상담사님께서 제 그림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포트폴리오에 꼭 넣으면 좋겠다고 용기를 주셨어요. 서류 접수 이후에는 면접장까지도 동행해 주셨는데요.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정말 든든했습니다.”



▣ 응원의 한마디

“어려운 단계를 넘어서면 쉬워진다. 오늘 대충이라도 하자” 제가 가장 좋아하고, 매일 되새기는 말입니다.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작하면 어떻게든 굴러가게 되더라고요.





배움의 설렘, 성장의 기쁨

김재은 씨는 2022년 8월 재취업에 성공하여 현재 식음료 유통회사 에이플러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와 동행한 면접에서 포트폴리오에 대해 큰 칭찬을 받았고, 이제 다시 원하는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음료 패키지 디자인부터 제품의 상세페이지 제작까지 김재은 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회사에서의 만족감도 큽니다.

“요즘은 즐거워 보인다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이전 회사와는 달리 제가 디자인한 제품들을 주변에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신기해하면서 좋아해 주는 모습들을 보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무미건조한 포트폴리오를 앞에 두고 씨름하던 때를 떠올리면 지금은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제 손을 거친 결과물들이 성공적으로 출시되고 유통되는 것을 보며 열정도 더 커지고 있죠.”

즐거움 50%, 더 잘하고 싶은 마음 50%. 김재은 씨는 4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설렘과 순수한 열정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에 다니며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제품 상세페이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이미지 소스와 영상의 이해도를 높여 디자인뿐 아니라 마케팅 전문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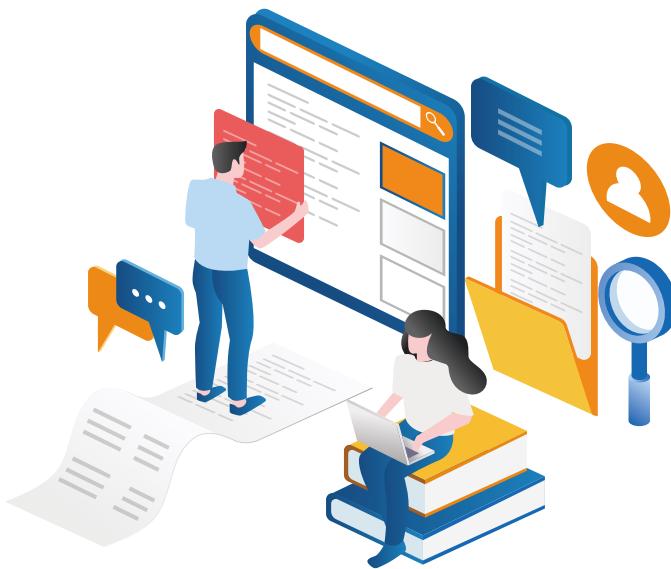
“회사에 다니며 새로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겁나기보다는 설레는 마음이 앞섭니다. 제 그림의 가치를 먼저 알아봐 주시고, 용기 내어 도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상담사님이 계셨기에 자신감을 많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극복의 경험, 성공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취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온라인노사부조리신고센터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신고창구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그간 사업장이나 노동조합 내부에서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되며,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서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사의 불법·부당행위에는 특정 노조 가입 및 탈퇴를 방해하거나 노조 재정의 부정 사용, 노사

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미실시, 검사 결과 비공개, 조합비 부당 사용 등 회계 투명성을 어긴 경우도 신고의 대상입니다. 사용자의 불법·부당행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휴업수당 미지급, 육아휴직 미부여,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접속한 후 상단의 메뉴에서 [민원-신고센터]를 클릭합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민원신청

민원확인

이용안내

신고센터

신고센터 안내

확인하고자 하는 신고센터 선택

신고센터

신고센터 신고

부동동행위 신고

부동조경 및 노동환경개선업

부동노동행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업·휴직·휴가 의병신고

휴업·휴직·휴가 의병신고방법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체 면밀 무관직무이며 저임금·가시직·파업·파업종료·가족동반휴가 미리부터 대량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신체권 침해 신고

직장 신체권 침해 신고입니다. 이를 신고하는 피해자는 수 있습니다.

고용 상 성차별 의병신고

고용 상 성차별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박금지법 위반고지내

정박금지법 위반 고지내입니다. 신고합니다.

공직자 부정비리 신고

고용·복지·문화·부처별 부정비리 신고입니다.

공익침해 행위신고

국민의 공익침해, 양심·의식적인 이유로 행위를 저지른 행위를 신고합니다. (보조금, 각종 지원금, 금여 등 보정수급)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대지급금을 무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합니다.

②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신고센터 중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선택하면 관련 정보가 안내됩니다.

신고내용

신고내용은 해당 노동조합 등의 범위·무남·범위의 사용자조차 및 조합원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서 철도관련자로이거나, 원활한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이고 속자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신고사건 제기하고자 하는 분은 신고인의 민족·나이·성별·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인의 확인(기본)

▶ 제목

노동조합(또는 회사) 민원

▶ 시도

▶ 시군구

노동조합(또는 회사) 주소

▶ 상세주소

연락처

▶ -

▶ -

일자

▶ 신고일자

부조리내용

▶ 부조리 유형

부조리 형태 세부내용

▶ 가능한 한 자세하게 작성해주시면 원활한 신고사건 처리의 도움이 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크기는, SMB8 이하로 첨부해주세요. (파일경로나 이메일에 첨부문서를 넣지마세요.)
▶ 업로드 하실 경우 확장자 : hwp, doc, pdf, xls, gif, jpg, bmp, zip, jpeg

▶ 이전

▶ 다음

▶ 접수인의 확인(기본)

④ 제목, 노동조합·회사(사용자), 불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일
시, 부조리 유형, 세부 내용 등을 기입할 수 있으며 참고
파일이 있을 경우 첨부파일 항목에 파일을 첨부할 수 있
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인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성명과 연락처, 이메일 등을 입력하고 하단의 '신청'을 클릭하면 신고 내용이 제출됩니다. 익명신고의 경우에도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신고 처리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고, 필요 시 신고 내용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조치합니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의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처리합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포괄임금오남용근절 #공짜야근근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13일(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IT 기업 노조 지회장과 근로자들을 만나 포괄임금(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넥슨, 웨젠 노조 지회장이 참석했으며 게임회사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 3명도 함께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정부



역사상 최초로 포괄임금 오·남용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월 2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는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를 지적하며 근절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해 공정의 가치에 맞지 않고, 특히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저임금 근로자의 좌절감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강조했습니다.

3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합니다

#조선업상생협의체 #조선업인력난해소



2월 6일(월) 고용노동부는 울산시와 함께 현대중공업 아산홀에서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 현대미포조선 김형관 대표이사, 각 사의 사내 협력사 연합회장인 이무덕 대표, 전영길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발족한 '조선업 상생협의체'의 진행상황을 공유했으며, 조선업 현장의 극심한 인력난과 정부지원 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조선업 상생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한다면 정부는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4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퇴근비용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했고, 지원 규모도 2022년 3,850명에서 약 4배 증가한 15,000여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출·퇴근 비용 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향상, 직장생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온라인)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hub.lead.or.kr)을 확인하거나 공단 관할 지사로 문의(공단대표번호: 1588-1519)하면 됩니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5

좋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으뜸기업·유공자를 추천해주세요

#좋은일자리창출 #으뜸기업 #일자리창출유공

고용노동부는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 성과를 거둔 민간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이래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금융·정책자금지원,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우대 등 200여 개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민간기업, 취업지원기관, 대학·연구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수여해 왔습니다. 올해는 기업에 대한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과 개인에 대한 일자리창출 유공포상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행사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질적 측면에서 기업의 노력과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일자리창출 유공은 일자리창출지원, 청년고용촉진, 장년고용촉진의 3개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 개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집, 우편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추천 접수는 2.13.(월)~3.13.(월)이며 접수 이후 공개검증과 공적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9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6 자신감 회복부터 취업까지!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신감회복 #참여수당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개를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2022년도에 사업에 참여한 자치단체와 청년이 크게 증가했으며, 그간 사업에 참여한 구직단체 청년 중 58.7%가 취·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불어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서적 안정, 자신감 회복 및 진로탐색 등에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이 많아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단기 프로그램(1~2개월)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 250만 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업 지원 대상은 구직단체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 선발 청년 등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 졸업 유예생 등은 장기 구직단체 상태 방지를 위해 참여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

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앞으로 운영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낭만과 감동에 존재하는 땀과 노력 테마파크 퍼레이드 기획자

어린아이들의 꿈의 나라이자 연인들의 데이트 필수 코스로 손꼽히는 곳, 바로 테마파크입니다.

테마파크에서 선보이는 화려한 퍼레이드는 방문객에게 인상적인 경험을 남겨줍니다.

낭만과 설렘이 가득한 이곳도 어떤 이들에겐 일터가 됩니다. 방문객들이 환호하는 이벤트도 어떤 이들에겐 업무가 되죠.

사람들에게 낭만과 감동을 선사하는 직업, 테마파크 퍼레이드 기획자를 살펴봅니다.

퍼레이드 기획자는 테마파크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인 퍼레이드를 총괄하는 직업입니다. 이는 새로운 방문객 수요를 창출하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차원의 마케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레이드 기획자가 퍼레이드를 기획하여 관객에게 선보이기까지는 대략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퍼레이드 기획자는 기획 단계부터 실현 그리고 사후관리 단계까지 일련의 과정 전체에 관여하기 때문에, 업무

범위는 기획부터 연출, 관리, 감독 등 넓고 다양합니다. 업무에 고려해야 할 사항 또한 안전, 시기, 경비, 실현 가능성 등 매우 많고 까다롭죠.

테마파크의 퍼레이드는 신년, 봄, 여름, 가을, 크리스마스 등 5 가지 컨셉을 번갈아가며 쉬지 않고 진행되기도 합니다. 현장의 기획자들은 전체적으로는 1~2년 후를, 구체적으로는 두 계절을 미리 내다본다고 답합니다. 봄에 가을 퍼레이드를 준

비하는 식인 것이죠. 기계, 조명, 공연, 미술 등 여러 팀과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유원시설은 테마나 디자인의 전체적 주제 안에서 기존 콘텐츠의 영역을 파괴하거나 서로 다른 콘텐츠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중문화에서 히트한 콘텐츠를 이벤트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L테마 파크에서는 할로윈데이를 맞이하여 호러 콘셉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좀비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비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에서 자주 활용되는 단골 소재이죠.

페레이드 기획자는 주로 관광 계열 전공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유원시설 관리사, 서비스사와 조경사, 토목사, 안전관리사 등 시설운영과 관련된 자격들이 직무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적 감각을 비롯한 창의성을 보유하거나, 최신 트렌드 및 고객의 욕구에 민감한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보다 유리합니다.



페레이드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설렘과 환호는
이들이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페레이드 기획자들은 새로운 이벤트를 구상하며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줄 준비를 합니다.



TIP!

관련 직업훈련 조회는?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 NCS 직종 >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관광·레저 > 관광레저서비스 > 유원시설운영관리

직무 사진

직무명

유원시설운영관리

직무정의

유원시설운영관리는 고객이 위락활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유원시설에서 유기시설과 유기기구, 상품판매시설, 고객 편의시설 및 인적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위하여 기획, 서비스운영관리, 어트랙션운영관리, 상품기획, 식음료운영, 이벤트운영, 전시운영, 시설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등을 하는 일.

필요 지식

국내·외 유원시설 이벤트 실무 지식, 프로그램 기획력, 실행계획서 작성력, 이벤트 연출법, 인허가 업무수행, 이벤트 모니터링 방법 등

관련 전공

관광경영학과, 광고홍보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벤트학과, 공연제작과 등

직무 태도

이벤트 트렌드에 민감하고 팀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합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및 좋은 공연을 본 방문객이 공연을 마친 후에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항상 고민하는 자세 등



마케터의 힘을 키우는 길

마케팅은 매우 중요한 경영 활동이지만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며 실무에서 정답을 정의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상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기업에 필수적인 마케터.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어떤 콘텐츠가 도움이 될지 함께 알아봅니다.



01

시작은 자료조사부터

시장조사는 상품 기획에 필수적입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취합하고, 핵심을 정확히 뽑아내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02

제대로 읽어내는 능력

똑같은 통계 자료를 보고도 각자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파고들어야 합니다.

03

잘 듣고, 잘 말하는 법

어떤 직무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마케터에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필수입니다. 팀원과의 협력, 다른 팀과의 협력은 물론이며 소비자와의 소통도 중요하죠.

✓ 소비자의

심리를 알아야

백전백승

“소비자의 마음을 두드려라”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사람의 심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밴드웨건, 베블렌 효과 등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마케팅 심리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밴드웨건 효과

‘편승효과’라고도 하며, 유행하는 정보를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스놉 효과

밴드웨건 효과의 정반대 현상을 나타내는 효과입니다. 남들과 다른 소비로 차별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심리입니다.

베블렌 효과

가격이 비싸져도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과시욕과 허영심이 이유로 작용합니다.

에펠탑 효과

‘반복노출 효과’라고도 하며, 심리적으로 익숙한 것들에 호의를 품게 되는 심리를 이용합니다.

언더독 효과

약자를 응원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후발주자들이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웨더독 효과

개가 꼬리를 흔들면 몸도 같이 흔들리는 모습에서 착안한 용어입니다. 본품보다 사은품에 이끌려 구매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❶ 메일함에 숨은 선물, 트렌드 집합 뉴스레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마케터가 갖춰야 할 대표적인 자질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이슈 중 양질의 정보를 골라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편하게 최신 트렌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뉴스레터를 소개합니다.

캐럿

매주 화요일 출근 전에 메일함으로 배달되는 트렌드 레터. 최신 유행 현상, 임 등 MZ세대의 이해를 돋는 다양한 인사이트가 가득합니다.

스포레터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마케팅 꿀팁 모음집. F&B 트렌드부터 로컬 소식까지 사회 전반의 다채로운 현상에 주목해 생각할 거리를 전합니다.

까탈로그

트렌디한 브랜드와 신제품의 이야기를 담아 매주 금요일을 화려하게 채우는 뉴스레터. ‘취향 뉴스레터’를 지향하며 전자제품, 패션, 공간 등 폭넓은 정보를 다룹니다.

어거스트

미디어 트렌드에 목마른 이들을 위해 화요일마다 배달되는 이슈 뉴스레터. OTT 플랫폼, SNS 등 미디어 업계의 트렌드를 빨 빠르게 전합니다.

❷ 더 심도 있는 마케팅 지식이 필요할 때

특정 분야에서 앞서 성공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속에서 뜻하지 않은 해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마케팅 전문가의 응축된 지식이 담긴 교양 서적을 소개합니다.



마케팅 설계자
러셀 브런슨 / 출판사: 월북



브랜드로 남는다는 것
홍성태 / 출판사: 북스톤



온라인 비즈니스의 영업 비밀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관심을 끌고 고객을 설득하고 팬덤까지 형성하는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요. 마케팅의 전 과정에 즉시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법을 알려줍니다.

창업가, 마케터, 기업의 실무자들과 가까이서 호흡하며 ‘살아남는 브랜드’가 되기 위한 고민과 해답을 담은 책입니다. 마케터의 창의성을 키우는 법은 물론, 꾸준히 사랑받는 브랜드의 필수 자질을 이야기합니다.

주말에 뭐 할래?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3월,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동안 미뤄왔던 문화생활을
만끽해보세요.



영화
멍뭉이

<국가대표>, <도둑들> 등 많은 히트작을 탄생시킨 김주환 감독의 작품 <멍뭉이>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따스한 영화입니다. 민수, 진국 형제는 동생 같은 반려견 '루니'의 새 집사를 찾으러 제주도로 떠납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형제는 느닷 없이 새로운 개들을 만나게 되고 상황은 점점 복잡해져 갑니다. '견'명적인 만남으로 시작된 뜻밖의 여정에서 형제는 '멍뭉이'들과 가족이 되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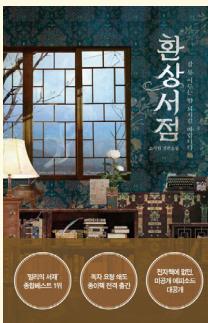
뮤지컬
앤ANNE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소설 <빨강 머리 앤>은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로 각색되며 세대를 불문한 앤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뮤지컬 <앤ANNE>은 '빨강 머리 앤' 공연을 준비하는 결판여고 연극반 여섯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빨강 머리 주근깨 소녀 '앤'의 역할은 누가 맡게 될까요?



전시
스튜디오 렌카: 플록

3월 28일까지 '일우스페이스'에서 스튜디오 렌카의 개인전 <플록>이 개최됩니다. 스튜디오 렌카의 작품에는 전쟁, 폭력, 기후변화 등과 같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삶이 파괴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삶, 그리고 회복의 희망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스튜디오 렌카 특유의 시원한 화면구성과 원색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낭만적 감성을 보여주는 이국적 풍경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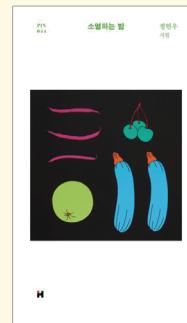
소설
환상서점

오디오북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환상서점>이 종이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오디오북을 소설화하여 출간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로, 출판시장의 새로운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상서점>에서는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알 수 없는 공포 속 어렴풋한 애틋함과 인물들의 애절한 사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상서점>의 서점 주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전시
권현진: Visual Poetry Pixel
Puzzle

3월 28일까지 워커힐호텔(프린트베이커리 워커힐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권현진 개인전 <Visual Poetry Pixel Puzzle>이 열립니다. 작가는 눈에 보이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자 눈을 감고 빛을 봤을 때 눈에 맛히는 가상의 환영들을 시각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캔버스에 가득 펼쳐진 다채로운 색의 배열과 생동감 있는 움직임으로 표현된 작가만의 감성을 만나보세요.



시집
소멸하는 밤

'현대문학 핀 시리즈' 시인선 마흔네 번째 시집 <소멸하는 밤>은 정현우가 첫 시집 <나는 천사에게 말을 배웠지> 이후 2년 만에 내놓은 신작입니다. <소멸하는 밤>은 생명을 지닌 존재들의 죽음과 실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슬픈 찬가인 시 41편과 사랑하는 존재와의 이별을 환상적으로 그린 에세이 <슬픔의 반려>를 함께 엮은 시집입니다. 슬픔을 통해 상실의 해답을 찾는 사유의 힘을 보여줍니다.

낼툰

글·그림
곽승훈





#일스타그램

여러분의 일은 어떠신가요?
자랑하고픈 근무 환경, 든든한
나의 동료, 보람찬 나의 업무,
노력이 묻어나는 구직활동까지.
<월간내일>에서 구독자들 저마다의
'일'을 모두와 공유하며
함께 공감하고, 웃고, 즐겨 보아요.

참여방법

1. 인스타그램에 나의 '일'을 표현하는 사진을 선택한다.
2. 본문에는 관련 코멘트와 함께 해시태그 '#월간내일_일스타그램'을
필수 기재하여 게시한다.

*비공개 계정은 참여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참여혜택

참여 게시물이 해당 지면에 게재될 시, 달콤한 디저트 쿠폰을 지급합니다.
당첨자에겐 별도의 연락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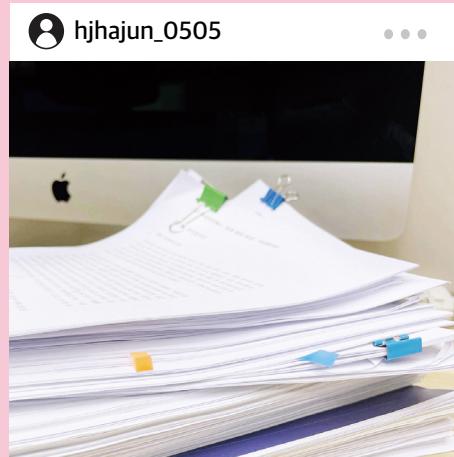
댕댕이들과 만남의 축복이 끝이 없네. 끝이 없어.
미용하면서 손도 많이 트고 갈라지고 성한 날이 없
지만 그래도 이런 귀여운 순간들을 보는 힘으로♥
#올클리핑 #빡빡이컷 #월간내일_일스타그램



a_gacci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두근거림이 가득한 이곳이 저에게는 일터입니다! 힘든 일도 물론 많지만, 수많은 사람의 설렘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직장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제일 괴로운 점이라면 매일 부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ㅎㅎ #월간내일_일스타그램 #남들은여행 #나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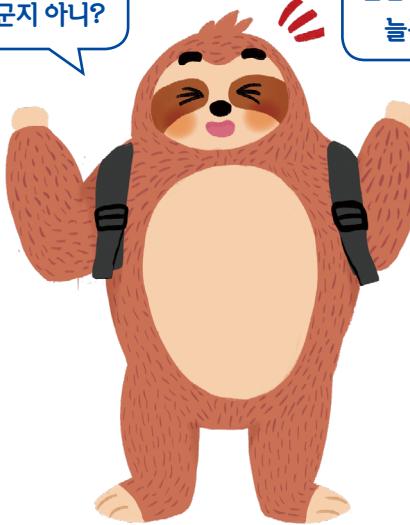
내일 오전 프로젝트 완성본 제출을 앞두고 정신없이 지나간 하루. 그래도 우리 팀에서 많이들 도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었다. 내일은 깔끔하게 책상 정리부터 싸악하고 상쾌한 업무를 시작해 봐야겠다!
#월간내일_일스타그램 #미션완료
#책상정리필수

3월의 독자 참여 이벤트

내가 누구? 늘! 봄!

Hey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늘봄이다!
늘봄이다!



늘봄이의 이름을 활용하여
재치있는 문장을 보내주세요!

참여예시 내일이 월요일이거늘 다시 기운을 내 봄!

참여방법

- ① 웹진(www.labor21.kr)에 접속한다.
- ② 독자 참여 > 이벤트 참여를 누른다.
- ③ 나만의 아이디어를 남긴다.

* 구독 후기까지 남겨준다면 당첨 확률 up!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정하여 달콤한 디저트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기간: 3. 2.(목) ~ 3. 19.(일)

당첨자 발표: 4. 3.(월)

<월간내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3월부터 달라진 <월간내일>을 소개합니다.



01



44면

‘어라?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월간내일> 매거진은 44면으로
개편되어
더욱 알찬 소식만 쑥쑥 모아
전달합니다.

02



‘그래도 조금
아쉬운데?’

<월간내일> 웹진은
매거진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이야기를 별도 업로드하여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03



‘난 이런 게
궁금해!’

<월간내일> 웹진에 독자참여
카테고리가 신설되어
여러분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들을 수
있습니다.



웹진 바로가기



독자참여 바로가기

